

파멸의 낭떠러지로 질주하는 《3 두마차》

얼마전 일본의 히로시마에서 서방의 주요7개국수뇌자회의가 있었다. 여기에서 주목을 끈 것은 회의의 테두리안에서 일본과 남조선, 미국사이의 쌍무 및 《3자수뇌회담》이 진행되었다.

이 회담들에서는 일본과 남조선사이의 반공화국공조를 강화하는 문제, 그 무슨 《북핵 및 미사일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일본남조선 3자가 미사일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비롯하여 군사적결탁을 강화하는 문제, 미국의 인디야태평양전략실현을 위해 공동으로 주변나라들에 더욱 압박을 가하는 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또한 미국의 워싱턴에서 미국일본남조선 《3자수뇌회담》을 다시 열기로 합의하였다.

예상되었던바이지만 히로시마에서의 이번 쑥덕공론은 공화국과 주변나라들을 겨냥하여 이미전에 미국과 일본, 남조선것들이 진행하였던 밀담과 모의들에서 논의되고 합의한 문제들을 재확인하고 《3자공조》를 더욱 확대 강화하며 아시아관 나토인

《3각군사동맹》완성을 더욱 다그치기 위한 불순한 모의 판이었다.

미국의 새로운 세계제패전략인 인디야태평양전략수행에서 제일 장애물로 되어온 것은 과거사문제에 의한 일본과 남조선사이의 모순과 갈등이었다.

이로부터 미국은 최근에 와서 이 문제를 더욱 중시하고 아시아의 두 주구를 상대로 회유와 압박의 양면전술을 구사하여왔다.

일본수상을 불러다 놓고 《조언》을 주기도 하고 군사대국화와 재침략등에 《지지》를 표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윤석열역도를 호출하여 《국민환대》의 《단물》도 부어주고 일본과의 관계개선에서 남조선이 《양보》를 해야 한다고 압박을 가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로 윤석열역도의 섬나라해각과 기시다의 남조선행각이 이루어졌으며 종당에는 친년수석과 친일사대미국노가 《마을이 아프다》, 《대단한 용기》라는 말 몇 마디를 주고받은 것으로 일본의

일남조선의 단독 및 연합해결전쟁승으로 하여 언제 핵전쟁의 불집이 터질지 가늠할 수 없는 것이 조선반도와 지역의 우려스러운 안전환경이다.

이번 주요7개국수뇌자회의에서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역력강화조치에 대해 《도발》이니, 《불가역적인 핵포기》니, 《엄격한 제재유지》니 하는 도발적인 내용을 조야박은 《핵군축성명》이 별도로 발표된데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회의장소인 히로시마의 참변이 말해주는 것처럼 인류를 상대로 끔찍한 핵전쟁을 들뜨게 하는 미국이다. 그리고 핵무기를 남만저 만들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핵위협과 공갈을 일삼으면서 핵없는 세계를 핵전쟁위험을 상시적으로 배반한 세계로 만든 것도 이번 회의에 참가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다.

진정으로 인류에게 핵참화가 다시 들뜨지 않을 바를 지어주고 세계의 비핵화가 소원이라면 그 나라들부터 자기들이 가진 핵무기를 전부 내놓으면 그만일 것이다. 이것이 핵무기없는 세상으로 가는 공정한 순서이고 진정한 로정도가 아니겠는가.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아닌 보살하고 미국의 지속적인 핵위협에 맞서 국가의 존엄과 최고이익, 인민의 안녕을 위해 불가피하게 갖추지 않으면 안된 공화국의 자위적역력을 문제시하며 《도발》, 《제재》 등을 운운한 것이야

말로 도적이 도적이야 하는 파렴치한 꾀비이고 억지주장이 아닐 수 없다. 이후 안무치고 파렴치한 나발에 윤석열역도가 목소리를 합쳐 《북의 도발과 위협》, 《강력한 대응》을 떠들어대고도 가관이 아닐 수 없다.

평화를 열창한다고 해서 평화주의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주요7개국수뇌자회의에서 울려나온 《평화》라함과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 윤석열역도의 《북의 도발과 위협》나발은 평화와 안전의 파괴자들의 뻔뻔스러운 너두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 미국의 핵범위를 고발하는 증언자인 히로시마는 핵전쟁위험을 가증시키는 불순한 세력들의 추악한 본색을 가리키는 든서로서 우풍, 리용당하였다.

이번 수뇌자회담기간에 윤석열역도는 친미친일주구로서의 본색을 다시금 날날이 드러내었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세계와 등을 지더라도 미국의 바지가맹이는 절대로 놓을 수 없으며 반공화국대결야망실현을 위해서라면 친년수적인 일본과도 한이불에 들 수 있다는 것이 역도의 속구구이고 더러운 매국매족의 기질이요.

이번에 바디를 건너가 일본수상과 다시 만난 자리에서도 역도는 우리 민족에게 만고죄악을 저지른 일본의 사죄와 배상에 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머리를 조아리며 얼마전 기시다가 남조선행각기간 《개인적인 감

정》을 전제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속에서 일하면서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한데 대해 가슴아프게 생각한다》는 말장난으로 과거죄악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외면한데 대해 오히려 남조선사람들이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극찬하여 내외의 경악을 자아냈다.

섬나라것들의 핵오염수방류책동에 대해서도 황의는커녕 형식상의 《시찰단》을 견학형식으로 후쿠시마에 파견하는 놀음을 벌려 섬나라의 범죄적인 책동에 둘러리틀 서준 굴종의 화신 역시 윤석열역도이다.

친일매국역적 리완용도 무색케 할 이런 회세의 친일매국노가 있어 재침멸에 들든 기시다를 비롯한 군국주의후예들은 회심의 미소를 짓고있다.

미일남조선의 침략적인 《3각군사동맹》이 흉물스러운 실체를 드러내고있는 오늘날의 위험천만한 사태는 우리 공화국이 자위적역력을 보충한 것이 천만번 정당하다는 것을 더욱 여실히 실증해 주고있다.

미국과 일본, 남조선의 호전세력이 반공화국침략책동에 발광적으로 매달릴수록 자멸만을 초래할 것이다.

우리 민족과 인류의 평화지향에 역행하여 미국이 앞에서 끌고 일본, 남조선피뢰들이 뒤에서 미는 핵전쟁 《3두마차》가 종당에 갈 곳은 천길 낭떠러지밖에 없다.

본사기자 김 정 령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퇴진이 답이고 퇴진이 리익이다!》

- 남조선에서 역적심판을 위한 대중적투쟁 련일 전개 -

사대매국과 반공화국전쟁대결, 파쇼독재에 매달리며 조선반도정세를 악화시키고 민생을 파탄시킨 윤석열역적패당에 대한 남조선 각계층의 분노가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있다.

남조선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종교단체 등은 련일 시국선언, 결의대회, 초불시위를 비롯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역도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대학교수, 사회원로들은 시국선언을 통하여 윤석열은 《주권》을 팔아먹고 평화를 내던지고 민족의 자존과 《국민》의 존엄을 훼손하였다고 규탄하면서 1년으로 충분하다, 더이상 기대할 것도 없고 기다릴 여유도 없다, 하루빨리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

주의를 회복하고 민생을 살리고 《주권》을 지키고 평화를 되찾는 길이라고 주장하였다.

《서울시국회의》는 서울의 동대문, 광진, 성동 등 16개 지역에서 《시국초불》 집회를 열고 윤석열역도의 친일굴욕외교를 규탄하였다.

《민주로총》도 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역도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하는 선포문을 발표하였다.

대회참가자들은 선포문에서 로동자, 민중에게 맹목한 윤석열이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가 없는 일본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우방국》을 도청하고 자국중심의 세계질서를 강요하는 미국에게는 한없이 굴종적이라고 단죄하면서 민족적자존심과 자주성을 내버리고 극단적인 친

친자 범죄자는 바로 현 당국이라고 주장하였다.

현 《정권》이 들어앉은 1년 동안에 민생, 정치, 경제, 외교 등 모든 것이 무너지고 파탄되었다고 그들은 단죄하였다.

그러면서 초불을 쯤들로 만들어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퇴진시켜야 한다고,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험난해도 가야 하며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우는 길에 각계 민중이 함께 서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집회참가자들은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퇴진이 답이고 퇴진이 리익이다!》, 《〈정권〉을 몰아내고 초불개혁을 이루어내자!》고 웨치며 시위행진을 하였다.

한편 서울주재 일본대사관앞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서도 반 《정부》 집회가 진행되었다.

《민주로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 《정권》이 일본의 물러리노릇만 하고있다, 당국이 핵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내고있는 일본에 한마디 항의조차 못하고있다, 윤석열이 굴욕외교로 전범국의 범죄를 옹호하고 재침야망실현에 힘을 실어주고있다 하면서 윤석열역도의 사대매국적행동을 심판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하였다.

서울의 종로구에서도 윤석열역적패당의 교육정책을 규탄하는 《전국교직원로동조합》의 집회가 있었다.

집회참가자들은 당국의 친재벌적이고 편향적인 교육정책에 대해 성토하면서 교사들에 대한 임금인상, 교육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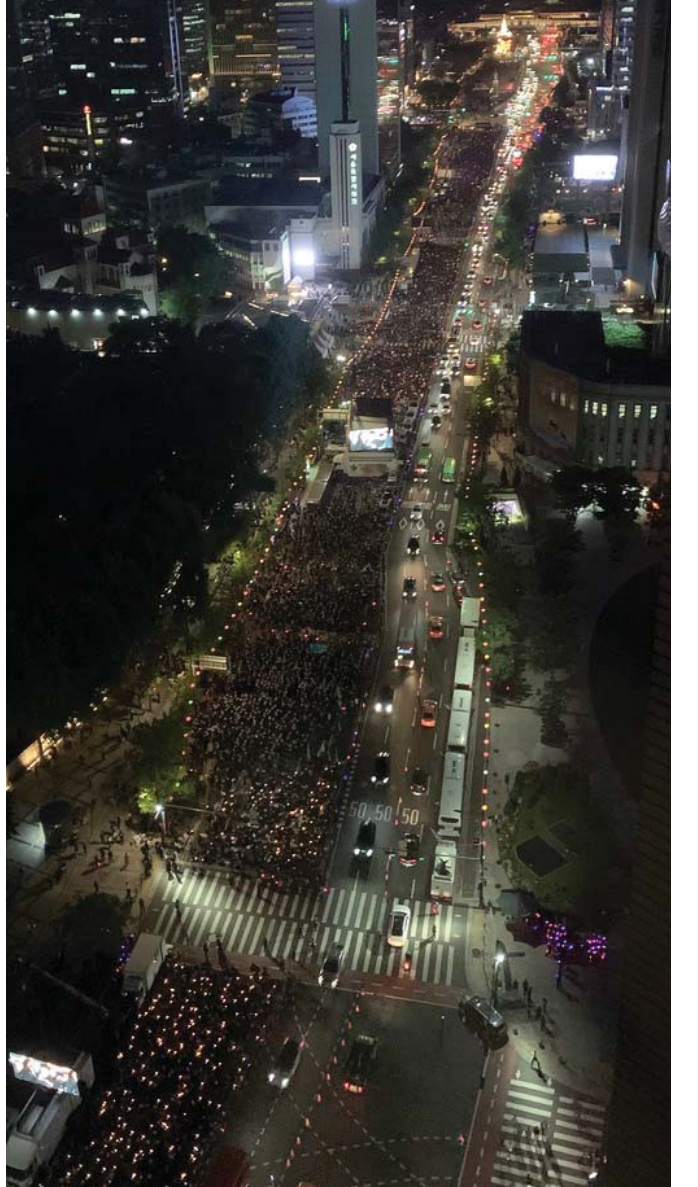
건개선, 평등교육실현 등을 요구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남조선의 불교계 역시 서울의 승려문양의 대에서 《윤석열 1년, 퇴진이 답이다》라고 쓴 구호판들을 들고 《윤석열퇴진과 김건희퇴진》을 요구하는 시국법회》를 열었다.

지난 19일에도 서울에서는 간호원들과 200여 대학의 학생 10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근로대중의 초보적인 생존권까지 짓밟는 윤석열역적패당에 항거하는 대규모적인 시위가 진행되었다.

반윤석열투쟁은 서울뿐 아니라 남조선 각지역에서도 거세차게 벌어지고있다.

대구지역 시민단체와 로동계, 진보정당들은 민생파탄, 민주실종, 평화위기를 초래



전라북도지역의 종교인들도 윤석열역적패당의 교육정책을 규탄하는 시국법회》를 열었다.